

# “군민·관광객 함께”...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팡파르’

### 내일부터 9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군민화합의 장 전시·참여·야경관람 등 ‘체험 가득’...어린이 이벤트도

강진군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갈대축제 준비하며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지역민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특별행사로 강진 노인의 날과 강진 재향군인의 날, 강진 어업인의 날이 함께 진행된다.



이 행사들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단합을 기념하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기여를 기념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 ‘강진군민 씨름대회’는 읍·면별 대항 경기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진의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강진문화예술인 한마당’은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을 나누고,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축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갈대로드 달빛 야행’은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야간 조명을 따라 걷는 갈대밭 산책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6일부터 11월3일까지 열리는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 약 1천450㎡ 공간에 국화정원을 조성했다(왼쪽). 지난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장에서 열린 강진군민씨름대회 모습. <강진군 제공>

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은 갈대 피아노의 추억만들기(사진무료 인화) 프로그램을 포토존에서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으며, ‘나만의 추억만들기(사진무료 인화)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장에서의 순간을 무료로 그린 사진거 여행이 진행된다. 강진만 생태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진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는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이 진행된다. 강진만 생태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진의

자연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갈대로드 양산 대여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양산을 제공해 갈대밭에서의 산책을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대형 연날리기 체험’은 넓은 갈대밭에서 연을 날리며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으며 ‘황금빛 갈대 열차 체험’은 갈대밭을 따라 운행되는 미니 열차다. 더불어 갈대로드 근대 의상체험, ‘갈대 컬러로 물들이다’(야간 경관), 강진만 생태체험관 분재 전시, 곤포아트 전시, 어린이 시화 전시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어린이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강진만 가을 국화 전시는 축제 기간 동안 강진만 생태공원의 가을 정취를 더해줄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축제는 강진만의 자연을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완공...단일 전각 ‘최대 규모’

### 내달 2-3일 현판식·문화대축제...순국선열 가르침 교육 장소 활용

해남 대흥사에 한국불교의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순국 의승군을 추모하는 호국대전(사진)이 건립됐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흥사는 이를 기념해 11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대흥사 호국대전 및 표충사 일원에서 현판식과 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인 해남 대흥사는 우리나라 대표 호국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팔도도총섭으로써 의승군을 이끌었던 서산대사의 종통이 이어져 오는 곳이다. 서산대사의 유언에 따라 임적 후 금란가사와 발우 등을 대흥사에서 기리고 있으며, 경내 서원인 표충사가 건립돼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처영대사의 영정이 봉안되고 정조대왕의 친필 사액이 하사돼 호국사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흥사 호국대전은 대흥사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호국의승과 순국선열 및 이름없는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776㎡ 단일 전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지난 2017년부터 국가유산청 사업으로 7년여의 기간을 거쳐 건립이 완료됐다.

향후 호국대전은 현대적 의미의 표충사로서 나라사랑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선양해야 할 순국선열들의 가르침을 전승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판식·문화대축제는 오는 11월2일 오전 9시 서산대사 탄신 504주년 기념 표충사 추계제향을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손준호·김소현의 공연과 종묘제



례악, 김소영 작가의 글씨당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과 함께 법요식, 현판제막식, 국제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판식 이후 내달 4일 초파일까지 조계종불교박물관과 총무원 문화부의 협조로 국가유산청이 보유한 패블 탱 아카이브 전시 기획전과 대흥사에서 소장한 금동관음보살좌상(보물 154

7호), 서산대사 금란가사와 발우 등 성보들에 대한 기획전시도 실시한다.

대흥사 주지 법산스님은 “두륜산 대흥사에 오면 이곳이 왜 서산스님이 귀의처로 정한 성소이고 한국인의 영적 성지인지 알 수 있다”며 “가을 꼭대 흥사를 방문해 특별하고 의미있는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남길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 “주민 안전 최우선” 강조

### 대조기 바닷물 역류 현장 방문 “충분한 소통 통한 대책 마련” 주문

영광군은 24일 “지난 21일 장세일 군수가 전남 서해안 일부 폭풍해일의 영향을 받아 바닷물이 역류한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청취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20일 오후 2시22분 대조기 만조 시 전남 서해안 일부 폭풍해일의 영향을 받아 바닷물이 역류하거나 침수가 됐다. 이로 인해 영광 염산면 설도항과 염산방조제 및 신흥방조제 등 일부가 영

향을 받았으나 피해는 없었다.

장세일 군수는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는 피해발생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 군수는 군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군에서도 상시 시의여주시 하고,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문화의달 맞아 ‘어떤 생물’ 체험 전시회

### 내달 5일까지 전남지역 특수학생 대상 다채로운 감각 놀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4일 “문화의달 10월을 맞아 오는 11월5일까지 전남지역 특수교육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전시회 ‘어떤 생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남지역 특수학생들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전시 콘텐츠인 감각놀이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 얻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미술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감각놀이는 크고, 대륙사슴, 산양 등 동물박제 표본을 눈으로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촉각을 통해 생물의 다양함을 직접 체험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전시 콘텐츠다. <사진>

또한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미술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여러 직업을 갖게 되는 재미있는 상상을 실제 미술작품으로 구현해 보는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현실로 표현하고, 그 작품을 대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개막행사에서는 작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초청해 샌드아트공연 및 촉각체험, 전시연계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진행됐다.

조용한 관장 직무대행은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라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신안군, DJ 탄생 100주년 국제학술회의 성료

### DJ 정치 철학·정책 재조명

박우량 신안군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해 김대중 정신을 되새겼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 후원으로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화해와 공존의 세계 지도자:김대중, 클린턴,

장재민, 오블이’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행사에는 박우량 군수, 우원식 국회의장, 문화상 전 국회의장, 운동섭 연세대 총장을 비롯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을 이끌었던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냉전 종식과 한중 협력체계를 만들어간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그리고 하의3도농지탈환운동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에 앞장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재조명했다.

박우량 군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재조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대 정신이 단절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마중물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 무안군, 낙지축제서 현장 이벤트

### 26-27일 ‘맛뚝무안물’ 가임시선물

무안군은 24일 “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뚝무안물’이 2024년 무안갯벌낙지축제를 맞아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안낙지갯벌축제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무안갯벌낙지축제장 홍보부스에서 진행된다.

축제장에서 맛뚝무안물 신규 회원 가입 시 쇼핑몰 대표 인기 상품인 쌀, 양파, 동결건조 마늘 등 다양한 농특산물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홍보부스에서는 무안 대표 농특산물과 맛뚝무안물에서 판매하는 다채로운 상품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무안의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알릴 예정이다.

현재도 ‘맛뚝무안물’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제철제맛 고구마 20% 할인 기획전’과 ‘한돈 위크 10% 할인 특가전’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맛뚝무안물의 현장 이벤트가 축제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더해줄길 바란다”며 “방문객과 군민들이 무안의 맛과 멋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반값 관광택시 타고 힐링 여행하세요”

### 완도군, 내달 15일까지 기본 2시간 이용료 50%지원

완도군은 24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15일까지 ‘완도 관광택시(사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도 관광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관광지 등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기사가 관광지와 문화유적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이동 및 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광택시 운행 요금은 기본 2시간에 5만 원이며, 11월15일까지 반값인 2만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요금은 3시간에 7만 원, 5시간에 10만 원, 8시간에 14만 원이며,

요금의 50%는 완도군이 지원한다. 관광택시 이용은 완도 관광택시 연합회(061-554-6888)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완도 관광택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완도 관광택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관광택시 운전자로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관광 안내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편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